

멤피스 디자인 양식을 중심으로한 에토레 소트사스의 작품 분석

An analysis of the Ettore Sottsass's works - focusing on a Memphis-Design Style-

강 현옥

시립 인천전문대학, 인쇄과

Hyunock Kang

Department of Printing,
Junior College of Incheon

I. 서론

1980년대 세계적으로 선풍을 불러일으킨 새로운 디자인 양식인 멤피스(Memphis) 디자인은 우선 디자인 스튜디오 알키미아(Alchimia)를 토대로 하고 있다.

알키미아는 1976년 Alessandro Guerriero가 설립하고 Alessandro Mendini, Andrea Branzi, Ettore Sottsass, Michele De Lucchi 등이 공동참여, Marcel Breuer, Charles Rennie Mackintosh, Gerrit Rietveld 등과 같은 고전적 기능주의자들을 풍자하면서 형태주의의 기능적 원칙만을 강조하는 디자인 사고에 반대하였다.

멤피스는 에토레 소트사스가 이 알키미아를 떠나 1980년에 만든 아방가르드적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이러한 반 디자인, 탈 디자인적 경향은 이미 60년의 POP 문화의 유행,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비문화현상에 의하여 새로운 문화형태를 추구하는 강한 욕구가 팽배한 속에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디자인과의 차이에 의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놀라움 등은 우선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었다. 반디자인적, 탈디자인적 경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 멤피스 그룹이 밀라노 전시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되고 각 디자인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된 때 부터였다. 즉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 분야가 고정적 형태의 딜레마에 봉착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을 때 에토레 소트사스는 멤피스 디자인 양식에 의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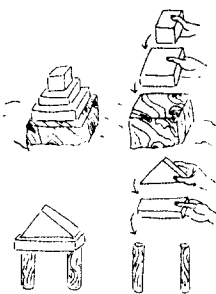


사진 1

결국 멤피스 디자인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에토레 소트사스의 디자인 이념과 디자인 방법론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80년대 세계적인 선풍을 불러일으킨 새로운 디자인 양식을 이해하는데 첩경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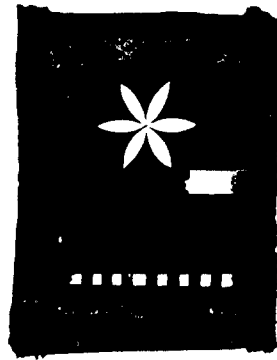


사진 2

II. Memphis-Design-Style의 준비 시기 :

1960-1970

1917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에토레 소트사스는 건축가인 부친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건축과 장식, 공예에 대한 흥미를 어릴적 부터 지니게 되었다. 더구나 투린의 대학시절에 접숙했던 아방가르드 예

술가들에 의해서 표현주의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막스 빌에 의해서는 순수 형태에 의한 구성주의적 성향도 갖게 된다. 특히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소트사스는 추상적 경향에 접근하였다.

소트사스의 디자이너로서의 활동은 그의 나이 약 40세, 즉 1956년경 부터이다. 소트사스는 무엇보다도 1957년 이래로 예술가로서 건축가로서 산업 생산품의 디자이너로서 그의 경험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완성과정과 생산에 적합한 새로운 재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에 축적된 재료를 이용했다.

자신의 어린시절의 조형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사진 1)에서 출발하여 운명적으로 발전되어 내면화된 심리적 세계에 접근하여 그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소트사스의 심리적 감수성은 그의 디자인 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강한 개성에 의해서 가능한 한 그 시대와 생활 주변에 대한 조형적 해결을 시도했고 명백히 하려했던 예술가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의 만남, 건축학과 교육에 대한 불만, 이탈리아의 국수주의적 경향에 대한 반발, 전쟁과 포로생활의 경험, 그외 다른 문화와의 접촉은 그의 내면적 차원을 심화시키는 경험들이 된다. 특히 병의 치유를 위해 머물렀던 캘리포니아 병원에서 경험에 의해서 죽음과 생의 환희, 인간의 존재 가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된다. 이런 내면화의 과정들은 거의 종교적 신비성을 지닌 상징과 같은 형태로 되어 나타난다. (사진 2 : Enzyklopaedie fuer den, der das Leben liebt, 1963)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소트사스는 목적에 적합한 기능적 작업에서 상징적 의식적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일상 생활의 사용기능외에 심리적 욕구를 충족 시키고 상징의 사용에 의해 토tem적인 것에서 종교적인 관념의 세계에까지 다다른 것을 보여준다. 소트사스는 한 개인에 의해서 측정된 세계관이 대상을 통해 표현되어야하고 이에 의해서 사고적인 세계와 실질적인 생활과의 관계를 가능한 폭넓게 일치시켜야한다고 믿었다. 그는 산업이 인간의 자아반영을 자극하는데 적합한 사물을 생산하는 것을 추구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은 60년대 미국에서의 POP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경험의 지적반응의 결과로 보이는 올리베티 회사의 타이프라이터 "Valentine"이다(사진 3). 이미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전통을 과감히 깨뜨리고 광채나는 빨강색의 문화적 유물과 같은 형태를 지닌 대상이 갑자기 인상학적인 차원의 가치를 얻게 된다.

70년대 초에 와서 소트사스의 작품들은 인도 문화의 본격적인 접촉으로 신비적인 힘을 발휘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사물들로 제작되었다. 70년대에 소

트사스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이상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70년대 말에가서 소트사스는 'New Modern'이라는 디자인 형태를 만들어내었다.

소트사스는 이 운동에 의해 사물의 형태들이 지닌 공허함, 무미건조함 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아방가르드 예술과 산업생산을 결합시키는 시도를 했다. 이러한 노력은 미술 분야 뿐 만이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도 하나의 도전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에는 1980년 랩피스가 생기게 되고 1981년 그들의 계획이 점점이되어 등장하게 되었다.

III. Memphis-Design 시대 : 1980

랩피스 시대의 작품을 색채, 형태, 재료를 기본으로 하여 살펴보면 그의 외면적인 특징의 다양성이 눈에 띈다. 빨강, 노랑, 파랑색 등의 원색과 점, 자갈, 지그재그, 얼룩무늬 등의 표면을 지닌 재료들을 사용한 꼴라쥬 방식은 형태가 지어야 할 기능 이전에 표현의 전달이 강조된다.

그리고 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의 단순한 기본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비대칭적 구성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비례규칙을 파괴하였고, 비대칭성과 불균형성이 과대강조되어 시각의 중심 이전과 함께 날카로운 형태의 모서리나 가장자리들은 전체적인 구성에서 어떤 정밀함 마저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까지 서로 의존적이던 형태, 재료, 기능 등이 각기 독립적인 요소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색조합의 다양성, 외면의 장식,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 크기 등을 복합 시켰다. 화려한 표면과 외형, 다양한 재료, 다양한 문화적 소재(사진 4)의 사용은 대상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지각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소트사스의 조형적 원리는 이미 그의 초기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38년 투린의 건축학과 졸업작품(사진 5)을 살펴 보면 기본적 구조, 단순하고 서로 겹쳐 연달아 조립된 형태, 기하학적인 부피 등에 의한 표현주의적 요소들을 엿 볼 수 있고, 이

러한 경향은 1957년 산업 생산품 디자인을 하면서부터 점차 본격적으로 체계화 되어 갔다.

랩피스 시기의 대표적인 디자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1981년 제작한 책꽂이 'Carlton'을 보면 인간 로보트와 나무구조가 서로 교차되면서 공간을 분할하고 있다(사진 6). 이 구조들은 다시 각각 개별구조로 분해되어 하나의 통일체로서 뿐만이 아니라 각 요소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에토레 소트사스는 눈부신 장식, 충격적 색상, 과다한 기율기, 익살스러움, 풍자 등의 의미에 의해서 기능주의의 좋은 형태의 도그마에 격렬한 등요를 불러 일으키고, 통속적인 것과 예술 사이를 넘나드는 혼란스러움의 통일, 평범한 것과 정신적인 것의 변화 등과 같은 서로 상반된 가치들을 랩피스 디자인 양식에 의해서 하나의 디자인 철학으로 보급시키고 실현시켰다.

IV.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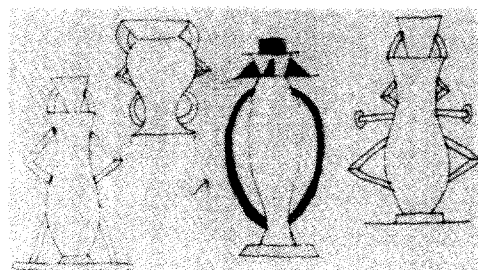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그의 디자인 방법론을 살펴보면 인간이 항상 중심이어야하고, 어린 시절의 놀이에서와 같은 즐거움의 형태를 느낄 수 있는 혼합구조를 찬양하고 있다. 그는 또한 사용되는 재료에 표현의 힘을 부여하고 싶어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와 구조는 단순한 처리로 분명하게 이용되어야 했다. 다양한 요소들의 단순한 몽타지에 의한 결과가 아닌 에토레 소트사스 자신의 인생경험에 의해서 여과되어진 그의 내면적인 차원은 독립적인 언어로서 대상들에게 아주 강하게 인상지워진 개인적 차원을 부여했다.

1980년대를 화려하게 수놓은 이탈리아의 혁명적인 반디자인, 에토레 소트사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의 조형적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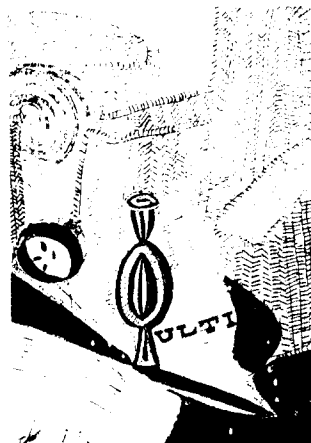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의 방향과 갈등의 해결을 소트사스의 디자인 이념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있는 것은 아직 소트사스의 디자인 철학에 많은 긍정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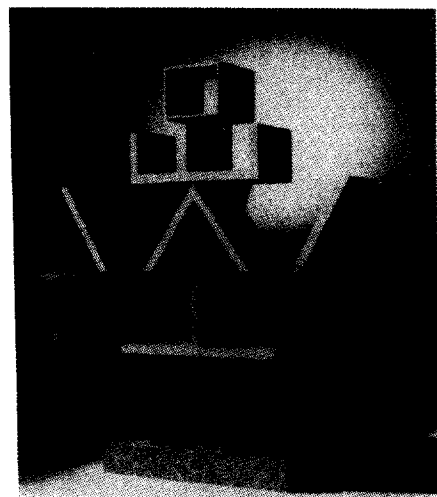
"Valentine"
(사진 3)



1981년 (사진 4)



건축학과 졸업작품(사진 5)



책꽂이 'Carlton'(사진 6)